

겨울밤 감동 선율... 오페라 향연 속으로

광주시립오페라단, 12월3~4일 '월드 클래식 오페라 시리즈II' 지휘 금난새·테너 허영훈 등



소프라노 윤정난



하모니시스트 이윤석



지휘자 금난새

12월의 밤을 오페라로 적실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됐다. 광주시립오페라단이 2022 송년음악회 '월드 클래식 오페라 시리즈II'를 연다.

12월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오후 5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1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마에스트로 금난새의 지휘·해설을 만나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공연은 1회와 2회 다른 테마와 출연진으로 구성된 '2일2색' 방식으로 펼쳐진다.

첫째날에는 '스페셜 갈라'를 시작으로 오페라 하이라이트 장면을 담아 선보이고 둘째날에는 '솔리스트 앙상블'로 세기의 명곡들로 무대를 구성했다.

출연진으로는 첫째날에는 공연의 예술감독과 지휘, 해설에 지휘자 금난새가 함께한다. 금난새는 1998년 유라시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를 창단했

으며 현재는 성남시 예술총감독 겸 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로 활동 중이다.

1부에서는 유럽과 미국 전역에서 활동 중인 소프라노 윤정난, 평화방송 클래식 라디오 '백재은의 행복한 오페라' 고정 해설가로 활동 중인 메조소프라노 백재은, 런던 길드홀 음대에서 오페라 마이스터 과정을 졸업한 테너 허영훈, 린즈국제성악콩쿠르 대상을 수상한 바리톤 조재경, 하모니시스트 이윤석이 무대에 오른다. 연주에는 매해 30여개 지역, 100여회 연주를 선보이고 있는 뉴월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맡는다.

총 3부로 이날 무대에서는 총 12곡을 선보인다. 먼저 1부에서 베르디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전주곡과 '프로벤자 내 고향으로'를 노래하고 2부에서는 오페라 '라 보엠' 중 '그대의 찬 손' 외 3곡을, 3부에서는 비제 오페라 '카르멘' 중 '하바네라'와 '투우사의 노래' 등을 선보이며 무디의 스

페인 환상곡 '틀레도'를 이윤석이 하모니카로 연주한다.

둘째날 공연인 '솔리스트 앙상블'에서는 운영문 광주음악협회장의 지휘로 노현숙을 포함한 17명의 소프라노와 강양은 등 13명의 알토, 김용복을 포함한 테너 12명, 박병국 외 10명의 베이스 등 광주지역 50여명의 성악가가 함께 대중이 사랑하는 가곡, 오페라 대표 합창곡 등을 선보인다.

총 5부로 구성된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 중 '아무도 잠들지 말라', 안치환의 '우리가 어느 별에서', 김효근의 '첫사랑', 신상우의 '꿈꾸는 섬' 등 14곡을 노래한다.

공연은 8세 이상 관람으로 인터미션 없이 90분간 진행되며 티켓은 티켓링크 또는 전화예매(1588-7890)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전석 2만원. 문의 062-412-2502.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이승기 "소속사와 신뢰 지속할 수 없다"

'정산내역 회피·모욕적 언사' 논란 후 법률대리인 통해 첫 공식입장

가수 겸 배우 이승기(사진)가 18년간 몸담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음원 사용료를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24일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승기의 법률대리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승기는 지난 15일 후크엔터테인먼트에 음원료 미정산과 관련된 내용증명을 발송해 그간 참여한 모든 앨범의 유통으로 인한 수익 내역을 공개하고, 이에 기초해 미지급된 음원료를 정산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승기 측은 "지난 18년간 후크엔터테인먼트에 소속돼 연예 활동과 그에 따른 정산은 소속사를 전적으로 믿고 따라왔다"며 "그간 소속사에서 음원료에 대해 어떠한 언급조차 하지 않아 음원료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다가 최근에야 소속사 직원이 잘못 발송한 문자를 보고 음원료 수익 발생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승기는 여러 차례 정산내역을 요구했지만, 소속사는 '너는 마이너스 가수'라는 등의 여러 가지 거짓 핑계를 대며 제공을 회피했다"고 전했다.

법률대리인은 "이 과정에서 이승기는 소속사 대표(권진영 씨) 등으로부터 입에 담기 어려운 정도의 모욕적이고 위협적인 언사를 전해 들었다"며 "이에 단순히 음원료 정산 문제를 떠나 오랜 기간 연을 맺고 가족처럼 의지한 후크엔터테인먼트와 권진영 대표와의 신뢰 관계가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고민 끝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승기는 음원료 정산 외에도 후크엔터테

인먼트 및 권진영 대표와 이승기 사이의 제반 법률관계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이승기는 앞으로 활동 중인 작품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명확한 사실 관계 검토 이후 별도로 입장을 전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며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 명확히 확인되면 물러서거나 회피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꼭두야 저승가자!'

놀이패 신명 창단 40주년 기념 12월 2~3일 북구문화센터



'꼭두야 저승가자' 연습장면

놀이패신명이 창단 40주년을 기념하며 여순사건을 주제로 한 공연을 마련했다. 놀이패신명의 제42회 정기공연 '꼭두야 저승가자!'가 12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 오후 7시 30분, 3일 오후 2시, 오후 5시) 양일간 북구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열린다.

공연의 배경은 올해로 74주기를 맞이한 1948년부터 1955년까지 여수와 순천에서 자행된 학살 사건인 여순사건으로, 우리나라 전통장례문화인 '꽃상여'를 장식하는 꼭두 인형을 소재로 삼았다.

공연의 극작 및 연출에는 극단 출신 나창진씨, 출연에는 백민, 노은지, 정찬일, 김혜선, 강근희, 소지원이 함께한다.

장례문화 변화로 개점휴업상태를 맞이한 꼭두

들, 이들은 저승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영심을 만나 여수에서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아버지를 찾아달라는 요청을 받는다. 꼭두들은 영심의 아버지를 찾아 나서고 결국 우여곡절 끝에 영심의 아버지를 찾아낸다. 하지만 아버지는 저승으로 가지 못하는 지박령이 돼 있다.

공연을 통해 74년 만에 만나게 된 영심과 아버지의 이야기를 그리며 여순사건을 극대화 시키고 해원과 상생을 염원한다.

공연은 7세 이상 관람으로 무료로 진행되며 북구문화센터 홈페이지에서 예매할 수 있다. 문의 062-410-8367.

/김다인 기자 kdi@

박수홍, 12월23일 뒤늦은 결혼식

"행복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방송인 박수홍(52·사진)이 연하 아내와 뒤늦은 결혼식을 올린다.

박수홍은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검은 고양이 다홍'을 통해 다음 달 23일로 날짜가 적힌 청첩장을 공개했다.

박수홍은 영상을 통해 "인생의 힘든 시기를 함께 겪으면서 저희 두 사람 더욱 단단해졌다"며 "저희 같은 어려움을 겪은 분들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행복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잘 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애완묘) 다홍이랑 저희 두 사람, 그리고 새로운 가족이 찾아오길 축복해주세요"라고 덧붙였다.

박수홍은 자신의 친형과 출연료 횡령 문제로 법적 분쟁을 벌이던 지난해 7월에 23살 연하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을 알렸다.

/연합뉴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